

차세대 Personal Computer

특집 편집기



황 시 영

(현 대 전 자)

1970년 말에 애플컴퓨터로 시작된 personal computer는 1995년 한해 펜티엄 PC 등의 세계 PC 판매량이 이미 약 6,000만대에 달하는 등 매년 20 퍼센트 이상 증가 추세에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올해 PC 보급율이 미국을 능가하는 등 급속히 고성능화 및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발달, 네트워크 기술의 진보, 병렬처리 기술의 향상 등 전반적인 기술발전으로 가격대 성능비의 향상은 물론 이미 퍼스널 컴퓨터와 서버, 엔지니어링 워크스테이션의 차이가 희박해지고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이 갈수록 짧아지고 있으며 더욱이 최근의 멀티미디어와 인터넷의 출현은 PC의 개념을 급격히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정보사회의 총아인 멀티미디어의 발전은 초고속 정보통신 기반구축, 국가사회 정보화 촉진 등과 연계하여 수요를 창출하면서 통신, 방송, 가전 등의 분야와 컴퓨터 분야의 경계를 모호하게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세계를 컴퓨터 통신망을 통하여 하나로 연결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인터넷은 동영상, 사운드, 가상현실 등을 수용하는 멀티미디어 인터넷으로 변화해가는등 PC의 사용환경이 복합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소의 시스템으로 인터넷에 간단히 접속할 수 있는 네트워크 컴퓨터(Network Computer)의 출현 및 휴대용 정보단말기(PDA)와 같이 주머니에 넣고 다닐수 있는 통신 가능한 소형 컴퓨터의 등장 또한 앞으로 PC의 개념이 어떤 형태로 발전되면서 존속해갈지 예측하기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있어서 차세대 PC에 관한 특집을 발간하게 된것은 차세대 PC의 기술동향을 이해하고 발전방향을 예측하여 관련산업이 국제경쟁력을 갖도록 대비한다는 관점에서 볼때 무척이나 뜻있는 일로 생각됩니다. 이 특집에서는 차세대 PC에서의 하드웨어/소프트웨어 관련기술 및 멀티미디어와 인터넷관련 기술동향, 그리고 휴대용 컴퓨터분야 등 8편의 논문과 일반투고 1편의 논문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집이 차세대 PC의 기술 및 동향을 이해하고 연구 개발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에도 원고를 성심껏 작성해 주신 집필자 여러분과 학회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바입니다.